혁명 이후, 더 치밀한 견제가 필요한 때

전문가 칼럼

김민웅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쉬즈위안(許知遠)이라는 중국의 한 젊은 지식인이 쓴 〈미성숙한 국가〉는 오늘의 중국에 대한 신랄한 해부학 연구 보고서이다. 그 방식은 매우 흥미롭다. 중국의 근대사 100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드러난 현상의 뒤편에 가려진 본질을 캐어 들어가는 솜씨가 현란하기 짝이 없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 곤란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일깨움을 주고 있다.

"물질이 풍부해지고 국가가 강대해지며 기술이 진보하고 심지어 민주제도가 수립되는 것도 우리 노력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다" 그의 다음 말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우리의 최종적인 성취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당연하게도 정신세계가 타락하면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진로 모두가 지저분해지고 탐욕과 어리석은 선택의 늪에 빠지게 된다.

쉬즈위안은 이렇게 덧붙인다. "1992년에 시작된 경제계획은 사회전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매수였다고 할 수 있다. 돈을 벌고 타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정신생활의 독립성을 포함하여 공인으로서의 다른 권리들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1992년 중국의 "부자 되기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해지는 것은 언제나 의식의 내용물이다. 그가 보는 중국사회의 현실은 "신념이 무너지고 도덕이 상실됐으며 사상이 질식해버린 사회"이다. 사상이 숨 막힌 곳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철학적 깊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상은 대안에 대한 끈질긴 탐험이다.

그러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는 사회가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눈 뜨는 일은 귀찮은 숙제가 된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려는 의지는 날이 갈수록 나태해지고 열정은 미지근한 온도에 자족하고 추진력은 게으른 자의 늦잠처럼 되고 만다. 한 시대 전체를 뜨겁게 변모시킨 역사는 이런 정신적 무능력과 치열하게 싸워 얻은 결과이다. 프랑스 혁명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정치적 창의력의 공간은 급격하게 팽창했으며, 굴종에 길들여졌던 인간은 자신의 목을 봉건체제의 기둥에 묶어두었던 사슬을 부수어 버렸다. 혁명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시대를 태어나게 했다. 권력의 주인은 바뀌었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반동의 유산은 폐기되거나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구체제 앙시앙 레짐은 그리 쉽사리 투항하지 않는다. 이를 제압해야 할 책임을 지닌 지성의 육체가 근육질로 단련되기 위해서는,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의식의 진화를 꾀해야 한다.

리처드 호프스태더(Richard Hofstader)는 미국 정치사상사에 대한 걸출한 저작을 남긴 학자다. 그가 쓴 〈미국의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가 최근 번역됐다. 원저가 1962년에 나왔으니 오늘날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반지성주의 정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을 보면 호프스태더의 통찰은 깊다. 1980년 초 미국 유학당시 읽었던 이 책을 우리말로 다시 만났다. 지성의 정치를 능멸해온 권력을 경험해온 세월을 비로소 넘어서고 있는 언덕 어디쯤에 선 지금, 그의 목소리를 다시 경청하게 된다.

그러나 안심할 틈은 없다

1950년대 미국은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풍요의 시대에 환호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매카시즘의 사상적 공세로 반지성주의의 기세가 압도했다. 스쥐위안의 말대로 "사상이 질식하는 사회"가 되고 만 것이었다. "사상은 외견상 안정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존 듀이의 성찰은 그 위험의 역설을 뜻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의 힘을 침묵시킬 수 있으면 기득권의 논리와 질서는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자기모순을 은폐한 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포기하게 된다. 호프스태더는 "지성은 늘 뭔가에 맞서 움직인다"면서 "모종의 억압이나 기만, 환상, 도그마, 이익 등은 언제나 지식인 계급의 면밀한 조사를 받으며 폭로와 의분과 조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지성의 역할이 좌절되는 사회는 기만과 도그마가 지배해도 항변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희생도 묵인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만다. 이른바 실용주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시스템 아래 본질적 질문은 배제되고 순응하라는 요구만이 진리처럼 유통된다.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는 국민적 감동을 주고 있다. 분명 기쁜 일이다. 그러나 시민이 정치의 관객은 아니다. 혁명 이후의 시민이 "이제는 되었다"며 구경꾼의 위치로 돌아가는 순간, 정치는 시혜와 은전이 되기 쉽고 우리는 비평가로만 만족하는 이들이 되고 만다.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탐험은 언제나 가치 있다. 사상의 족쇄가 풀린 "혁명 이후"에야말로 더더욱.

참여마당

문현수
(중국어학 2013)

나와 당신의 시절, I YOUTH U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생이라면 공감을 할 것이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스펙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도전을 포기하게 되 무기력증, 우울증 등으로도 이어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활동을 시간 낭비라 생각하며 꿈과 희망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젊음을 낭비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나 역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대학생이다. 해야 할 일이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해결하는 나만의 해소법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힐링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이다. 내가 정의 내린 '내가 좋아하는 일'은 왠지 마음이 끌려서 도전을 했더니 엄청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다. 올해 내가 도전한 일은 모 기업이 개최한 무교동 '거리 패션쇼'에 선 것이다.

의무와 행복 사이 균형은 맞추되
청춘만이 할 수 있는 도전과 성취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

이 거리 패션쇼는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활력이 떨어지고 지역 특성도 분명하지 않은 다동, 무교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나 역시 이번 패션쇼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서 도시 재생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패션쇼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다른 프로 모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실수 없이 후회 없는 무대를 하고 내려왔다. 값진 경험이었던 거리 패션쇼는 청춘의 열정이 성취감을 낳은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하여 계속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앞으로도 소중한 청춘을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알찬 열매로 가득 채워서 마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물론 하고 싶은 일만을 하는 무위도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의무는 다하되 하고 싶은 일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삶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자연스럽게 융합되기도 하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좀 더 견고하고 행복한 라이프가 될 것이다.

"나와 당신의 시절, I YOUTH U" 이번 패션쇼의 슬로건처럼 우리 모두의 청춘이 빛날 수 있도록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젊음을 즐겼으면 좋겠다.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도 모르는 대학생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찾아서 다양하게 도전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며 우리 청춘들을 응원한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계 열	대 학	면 제 기 준					면제내용
			TOEFL		TEPS	TOEIC	G-TELP	
			CBT	IBT				
공인영어 시험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Level2) 이상	과목면제 ※ 실시일 기준 현재 최근 2년 이내 점수에 한함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Level2) 이상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종류	자 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 (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현장 교류자/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 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1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1,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 계	제 2 단 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단 계	내 용	방 법	학 점	비 고
1단계	독후감 평가 (권장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 / 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신청기간 :** 2017. 06. 01(목)～2017. 06. 09(금) 17:00 까지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2017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7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 – 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묵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22(월)	◎ 공과대학 : 화학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 전자정보대학	09:00 ～ 18:00
5월23(화)	◎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사회기반시스템, 산업경영공학	
5월24(수)	◎ 공과대학 : 정보전자신소재 ◎ 체육대학	
5월25(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 ◎ 동서의과학과	
6월2(금)	◎ 응용과학대학 : 응용수학, 응용물리학, 우주과학 ◎ 외국어대학	
6월5(월)	◎ 국제대학 ◎ 생명과학대학 ◎ 응용과학대학 : 응용화학	
6월9(금)	◎ 교직원 ◎ 예술디자인대학 ◎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교통 안내**
가. 학교지원 차량(임대 버스)을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7번 출구 전방 200m(6번 출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 에서 07:45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45 출발
※ 군부대 차량(대형 또는 미니버스)은 용인버스터미널에서 08:00, 08:30 출발(2회 운용)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17년부터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바.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